

1. 문제제기 - 역사적 과거, 근대 주체, 섹슈얼리티
2. 문화적 교양을 통한 근대 주체와 섹슈얼리티의 타협 - 이태준의 『황진이』
3. 풍속사적 사실을 통한 근대 주체의 부정 - 김탁환의 『나, 황진이』
 - 1) 사실과 섹슈얼리티
 - 2) 근대와의 결별 욕망
4. 남는말

국문요약

본고는 역사적 기록을 소재로 한 역사소설 중에서, 특히 이태준과 김탁환의 소설을 대상으로, 황진이 소재가 갖는 특수성, 근대와 주체의 문제가, 섹슈얼리티와 연루될 때 야기되는 모종의 선택과 봉합을 해석함으로써 ‘근대’를 문제화하는 시각을 살펴보았다.

이태준의 소설 『황진이』는 ‘유혹하는 섹슈얼리티를 정체성으로 하는 기생의 행동 서사와, ‘내면과 진정성을 지닌 근대주체의 정당성’을 최초로 분열의 형식으로나마, 일관성있게 연결되어야 하는 숙제로 제공했다. 그의 소설이 역사적 기록과 행위서사를 선택하면서, 섹슈얼리티와 주체성의 분열을 성적 자기결정의 주체와 문화적 교양의 가치를 통해 정당화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김탁환의 『나, 황진이』는 섹슈얼리티와 남성편력으로 채워진 행위서사의 주체를 지우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는 이태준의 경우 1930년대 후반 근대적 비전의 보루로 갖고있던 문화적 민족주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의라는 시대해석과 닿아있고, 김탁환의 경우 근대소설 혹은 근대적 사실이 풍속과 이념으로 분열되는 것이, 근대주체의 해체욕망과 짝을 짓고 있다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김탁환의 경우 ‘근대주체’ 해체에의 욕망이 역설적이게도 ‘목소리’로 전체를 일관하는 ‘절대주체’(서화담)를 통해 견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를 부정하는 기획의 근대적 방식’을, 근대와 근대의 해체가 마주하는 인식론적 딜레마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주제어

기생, 황진이, 역사적 기록, 근대 주체, 섹슈얼리티

1. 문제제기-역사적 과거, 근대 주체, 섹슈얼리티

조선중기의 기생 황진이를 대상으로 한 소설은 다양하게 창작, 변주 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인물과 기록에 근거한 소설이라는 점에서 이런 부류의 소설은 역사소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중에서 황진이를 대상으로 한 문학은 특이한 위치를 갖는다.

먼저 역사적 기록을 소재 또는 대상으로 한 문학 중에서 황진이를 비롯한 조선시대의 유명 기녀들에 대한 기록과 작품으로 전해지는 시와 시조는, 허구적 창작만이 아닌, ‘기생문학’으로 분류되어 연구되어왔다. 이는 여성에게 적대적인 조선조 유교사회에서 그들의 특수한 신분으로 인해 가능했던 문학 및 예술 활동을 고전문학, 여성학, 민속학, 풍속사의 영역에서 다룬 것들이다. 최근까지도 이런 관점에서의 다양한 연구¹⁾와 전기나 대중적 읽을거리들은²⁾

1) 박종성, 『백정과 기생』, 서울대출판부, 권태연, 「조선시대 기녀의 사회적 존재양태와 섹슈얼리티 연구」, 박용옥 엮음, 『여성:역사와 현재』, 국학자료원, 2001; 김용숙, 「한국여류문학의 특질」, 『아세아여성연구』; 김지용, 「매창문학연구」, 김영숙, 「규중문학과 기녀문학의 가치」, 이화형, 「황진이의 시적진실」; 성현경, 「기녀시조와 사대부 시조」, 김지용·김미란 편, 『한국여류

꾸준히 생산되고 있다. 이들 연구나 전기, 대중적 풍속사적 접근들은 기생과 그들의 문학을 ‘텍스트’로, ‘사실’로 전제한다는 점에서, 허구적 창작물 형태의 소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기생, 즉 황진이라는 실재했던 역사적 인물을 허구적 서사물로 다루는 근대의 본격소설의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역사소설의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역사소설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대부분의 역사소설은 세종대왕, 수양대군, 이순신 임꺽정 등 남자 주인공을 국가의 운명과 연결된 영웅의 관점에서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역사소설이 말 그대로 역사적 소재를 다루는 것이라 할 때, 지난 시대의 역사적 기록의 대부분이 상층계급 남자에게 할애되어있다는 점에서 이는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특히 역사소설의 ‘역사성’은, 소재가 되는 사실의 전거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근대에 있어서 ‘역사적’이라는 특정한 시간감각과 국가 공동체의 운명, 그리고 그것을 추동하는 인간으로서의 남성주체가 일원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황진이를 대상으로 한 소설은, 이런 역사와 소설이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근대 역사소설과는 다른 편에 놓인다. 사실, ‘황진이 소설’이 다수 창작되어올 수 있었던 데에는, 일차적으로 그녀에 관한 기록의 존재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록을 해석하고 배치하도록 유혹하는 어떤 극적인 성격에 더 큰 원인이 있다. 출신성분의 비극성, 미모와 재능, 그 미모와 재능에 반하는 사회적 신분, 그 신분과 재능이 만들어내는 불일치와 당대 사회에서는 금기시된 섹슈얼리티와 매혹이라는 드라마틱함이 그것이다. 때문에 과거의 패설류의 기록에서는 지족선사나 벽계수 등을 유혹하는 요부로, 그녀와 교류했

한시의 세계』 등 다수가 있다.

- 2) 가와무라 미나토, 유재순 역, 『말하는 꽃, 기생』, 소담 출판사, 2002; 『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진 아카이브 연구소, 심영구, 『조선기생 이야기』, 미래문화사, 2002; 문정배, 『황진이』, 미래문화사, 1994; 정동주, 『논개』, 한길사, 1998; 이현희, 『창기와 명기의 애환』, 명문당, 1988 외 다수

던 양반들의 품위와 풍류를 예증하는 일화로, 당대 억압적 성관념을 뛰어넘는 일탈의 면모 등으로 파편화되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파편화된 기록들은 궁극적으로, 계급과 재능의 불일치, 그 불일치를 통해 한 사회의 지배윤리와 대면한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기녀 황진이는 지극히 근대적인 개인주체의 성장의 서사로까지 읽혀질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즉 그녀의 존재 자체가 반봉건적인 근대성을 체현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근대적 개인주체로서의 황진이는, 기생으로서의 그녀가 가진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전유되는가에 따라 그 성격 자체가 극단적으로 의문시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체의 성격은 소재가 되는 '역사적 과거'의 취사선택을 필수적으로 수반하게 마련이다. 이점에서 황진이를 소재로 한 소설은, '역사적 과거', '근대적 주체', 그리고 '섹슈얼리티'가 문제적으로 얽혀있는 어떤 해석의 '장'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단적으로 소재가 되는 황진이가 기생이라는 점은, 기생을 취급하는 시선에 이 세 가지 문제의식이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기생이란 제도적으로는 백정과 함께 취급되는 최하층의 신분인 반면, 그들이 활동하는 '장' 자체가 상류계급인지라, 상류계급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그것이 억압하고 있는 욕망을 발산하는 특수한 변경지대에서 생존하는 이들이다. 이 때문에 과거 조선시대의 '풍류'의 이름으로 이데올로기와 성적 욕망을 결합·포장하는 지배계급내의 행동양식은, 당대어나 그것을 호출하는 근대에서나 교양, 품위, 문화, 예술, 일탈의 형태로 해석되어왔다. 특히, 이와 같은 섹슈얼리티를 자기 아이덴티티로 갖는 기생집단의 특수한 위치는, 근대에서 더욱 매혹적인 주체가 되어왔다. 이는 행위와 내면의 주인인 주체와 근대가 억압한 골칫거리인 섹슈얼리티의 문제, 그리고 소설이라는 형식(사실을 특수하게 자기화하는)이 만들어내는 트라이앵글의 구도가 만들어내는 접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트라이앵글을 해석하고 각각의 꼭지점을 배치하면서 드러내는 시대 해석은, 사실은 황진이에의 모순적이고 분열된 지위를 전유해 자기시대를 해석하는 역사적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황진이를 대상으로 한 소설은 ‘역사(사실)’와 ‘섹슈얼리티’를 놓고 재편되는 혹은 그것들과 맞닥뜨리고 있는 ‘근대주체’라는 점에서, 당대의 모더니티의 지형을 드러내는 징후로 읽어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황진이를 대상으로 한 근대 본격 소설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기록과 그 기록들을 배치하는 작가 및 작가가 놓인 시대의 선택과 해석이 타협하고 선택되는 지극히 극적인 장이 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황진이를 소재로 한 소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세 가지 문제지점의 결합과 선택의 맥락을 살펴보고, 이것이 각 시대의 모더니티 해석과 어떻게 상응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황진이를 대상으로 한 소설³⁾은, 이태준의 『황진이』를 필두로 다양하게 창작되어왔고, 영화와 드라마로도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시대적 변화의 맥락을 살필 수 있는 이태준과 김탁환의 소설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한다. 최근에 출간된 전경린의 『황진이』는 최초로 여성작가에 의해 쓰여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논의의 일관성을 위해 본고에서는 제외하고자한다. 여성작가에 의해 쓰여진 여성역사소설은 초점을 달리해 살펴야 할 또 다른 테마라고 본다.

3) 황진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은 다음과 같다. 이태준, 『황진이』, 1938, 동광당; 정한숙, 『황진이』, 정음사, 1955; 박종화, 『황진이의 역전』, 『새벽』, 1955; 안수길, 『황진이』, 홍문각, 1977; 유주현, 『황진이』, 범서출판사, 1978; 정비석, 『옛날옛날에 한 여자-옷을 벗은 황진이』, 남향문화사, 1982; 최인호, 『황진이』, 『현대문학』, 1972; 『황진이2』, 『문학사상』, 1972; 김남환, 『황진이와 달』, 복지문화사; 최정주, 『황진이』, 산신각, 1993; 김탁환, 『나, 황진이』, 푸른역사, 2002; 전경린, 『황진이』, 이룸, 2004.

2. 문화적 교양을 통한 근대 주체와 섹슈얼리티의 타협—이태준의 『황진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설의 소재로 주어진 역사적 과거, 근대주체,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얽히느냐하는 것은 황진이를 다룬 대부분의 소설에서 문제 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했다. 이점에서 이태준의 『황진이』(1938)는 이후 황진이 소설의 대부분의 원형이 된다. 이 소설은 ‘사실’(기록)을 최대한 서사적 인과성으로 만들려는 최초의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서사적 인과성의 주체와 기생의 섹슈얼리티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생답지 않은 기품과 그녀가 행한 기생으로서의 행위-유혹의 형태이든, 교류의 형태이든-를 일관된 질서로 논리화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태준의 소설은 패설류의 과거 기록에 전해지는 황진이의 남자관계를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는데, 그 서사의 중심에 있는 황진이의 내면과 품성이 이 서사(남성편력)와 어긋난 채 분열하고 있는 것이다. 즉 남성을 유혹하는 섹슈얼리티와, 진정성의 거점으로서의 주인공인 황진이가 내적 필연성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태준의 소설에서 황진이는 양반과의 혼담이 깨지고 기생이 된 뒤, 혼담이 있던 김참판 가문의 부자를 비롯해서 소세양이나 벽계수 등 당대의 명문 사대부를 비롯해서, 20년이나 면벽수도했다는 지족선사들을 유혹하여 궤절 시키는데, 이런 행위를 추동하는 황진이의 내면은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명월은 소름이 오싹하였다. 일생을 처녀대로 무슨 정절을 세워 지키려는 비는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한번 호탕히 인생을 즐겨보기 위해 기생으로 나선 것이다. 구태여 질겁을 해 감추려는 정조는 아니다. 또한 무엇을 얻기 위해 구구히 화장에 전락된 몸도 아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나 권도에 의지하기 위해서 내놓은 몸은 결코 아니다. 내가 즐길 수 있는 사나이면

돈이 있건 없건, 권도가 있건 없건, 반응이 있건 없건, 도리어 내 것을 주면서라도 더불어 즐길 것이로되, 내가 한번 싫은 사나이면 그와는 영구히 빙탄(氷炭)일 수밖에 없다는 결심이 선지 오랜 것이다.⁴⁾

이처럼 이 소설은 사회적, 제도적으로 기생에게 할당된 성적 유혹자로서의 면모를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로 전환하고 있다. 물론 역사적 개연성을 기준으로 추론 했을 때, 기생이 성적 자기결정의 주체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이태준이 선택한 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는, 전해지는 기록(사실)-남성편력-을 근대주체의 행위의 일관성과 섹슈얼리티의 선택적 정당화를 통해 질서화하는 매개인 것이다. 이 매개를 통해 그녀가 당대 명문가의 남자들에 행한 유혹과 훼손은 이런 주체적 행동의 정당함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결정의 목적-대상인, '마음에 드는 남자'는 황진이 자신이 행하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남자'이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남자를 찾아헤메고 궁극적으로 서화담으로 귀착되는 서사의 진행은, 성적 자기결정이라는 근대적 주체성을 만족시키는 행위가 사실은 자기의 섹슈얼리티(정체성)를 역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틀은 궁극적으로 '기록', 즉 개연성이나 논리성이 있든 없든 황진이에 관해 전해지는 기록 거의 그대로를, 소설속의 서사로 선택하면서 빚어진 것이다. 이후의 황진이 관련 소설들이 사실(기록)을 취사선택함으로써 황진이의 정체성을 특화한 것에 비해 이태준의 소설은 전해지는 기록 거의 그대로를 서사적 플롯으로 배치하고 있다. 즉 소여로 주어진 사실(역사적 기록-남성편력)을 최대한 서사적 인과성으로 만들려는 최초의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 서사적 인과성의 주체와 기생의 섹슈얼리티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이 분열된 채, 그 모순된 행동의 주체인 황진

4) 이태준, 『황진이』, 1938. 동광당, 인용은 깊은샘, 1999, 117~118쪽.

이의 성격의 일관성을 창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생답지 않은 기품과 그녀가 행한 기생으로서의 행위-유혹의 형태이든, 교류의 형태이든-를 일치시키지 못한 채 분열로 남겨 놓은 것이다. 이를 연결하는 매개로 설정된 '성적 자기결정의 주체'는 그녀의 최초의 남성애에 대한 자발적 끌림을 정당화하는 데만 사용될 뿐⁵⁾, 이후 지속되는 유혹하고 시험하면서 자기 매혹에 굴하지 않는 남자를 찾아헤맨다는 설정을 논리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분열, 즉 성적 자기결정권이 내포하는 근대적 주체성이 사실은 자기 섹슈얼리티(자기정체성)를 부정해야 성립한다는 분열적 상황은, 유혹하는 섹슈얼리티를 정체성으로 갖는 황진이라는 존재 자체의 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황진이를 주체로 설정하는 것이 곧 황진이(아름다운 기생)를 부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 분열은 중세적 지평에서 일어난 행동을, 근대적 주체의 일관성으로 포섭하려는 시도가 만들어낸 분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록에 전하는 기생으로서의 남성'편력'을, 근대적 주체적 행위로서의 '행동서사'로 전환하면서, 그 편력의 제도적 기반-천민계급으로서의 기생에게 강제적 의무로 지워진 성행위-이 놓인 사실성을 삭제함으로써 빚어진 분열인 것이다. 역사적 기록의 선택을 통해 소설화하는 것이 역으로 역사적 기록이 근거한 제도적 기반과 그 기반위에서 존재한 사실을 배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이점에서 황진이의 '근대적 주체화'와 '사실적 소설화'는 한편으로는 그녀의 유일한 정체성(섹슈얼리티의 주인)을 부정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역사적 기록의 선택이 역사적 사실의 왜곡을 필수적으로 수반함으로써 수행된다고 할 수 있다.

5) "암만 생각해도 자기에게 징그러운 사람이다. 마음에 없다. 정을 쏟고 싶은 사나이는 아니다...."라면서 못남성들을 거부하던 황진이는, 예전 자신의 정혼자였던 선비를 보고는 "가까이 볼수록 선비가 마음에 든다....자기가 사랑해주고 싶은 사나이가 이런 사나이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라고 하듯 최초의 남성애에 대한 자발적 이끌림을 드러내는데 기여한다. 이후의 서사에서는 이런 자발적인 성적 이끌림의 문제는 사라진다.

결국 이태준의 소설 『황진이』는 ‘유혹하는 섹슈얼리티를 정체성으로 하는 기생의 행동서사’와, ‘내면과 진정성을 지닌 근대주체의 정당성’을 최초로 분열의 형식으로나마, 일관성있게 연결되어야하는 숙제로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분열이 문제적인, 지극히 비정상적인 문젯거리로 표면화된다는 것 자체가 행위와 내면의 일관성의 주체, 즉 행위를 추동하는 내면의 주인으로 주체를 정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황진이는 야사와 풍문, 단편화된 기록 속의 황진이가 아니라 근대소설의 주인공인 개인주체 황진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조집과 패설류⁶⁾에 산재하는 풍문과 기록들을 껴면서, ‘그녀(그)가 어떤 삶을?, 왜 그렇게?’의 형식으로 서사화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설정된 것이다.

이태준의 소설에서 이런 모순적 분열상황이 근대소설이 요구하는 주체와 인과성의 질서 자체가 빚어낸 것이라면, 이 분열을 통합하는 것은 예술적 교양과 시로 표현되는 문화적 영역이다. 기생의 유혹의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의 당당함으로 전환되는 것은 기생이 무언가 우월한 가치를 독점했을 때 가능하다. 즉 기생 황진이가 행하는 유혹과 남성편력, 당대 지배계급의 남성인 물들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행위들은, 궁극적으로 이들 대상이 되는 남성보다 기생 황진이가 가치상 우월한 지위에 있을 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우월한 가치는 중세봉건사회에서의 기생이라는 제도적 사실성의 삭제를 보충하고 통합할 수 있는 것일 것이다. 이태준의 소설에서 이처럼 모순을 통합하고 주체로서의 황진이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것은 인문적 교양과 예술이다. 시와 서예, 거문고와 노래 등이 그것이다. 이런 문화적 교양은 기녀라는

6) ‘황진이’에 얽힌 일화들이 전하는 야담, 패설류에는 허균의 『식소록』, 유몽인의 『어우야담』, 이덕형의 『송도기이』, 황준량의 『금계필담』, 김이재의 『중경지』, 『홍중인의 『동국시화휘성』, 김택영의 『소호당집』, 그리고 『조야휘언』, 『수양기구전』 등이 있다. 이병렬, 『이태준소설연구』, 평민사, 1998, 재인용

직업여성이 지녀야 할 ‘사실’이지만, 소설에서 그 교양과 재능을 우월하게 취급하는 문화적 정서, 그것으로 인해 상대방 남성들이 보여주는 찬탄과 감동이 기생 황진이를 가치론적으로 정당화시켜준다. 이처럼 문화적 교양을 통한 인물의 정당화가 주체성과 사실성이 만들어내는 간극을 메우는 서사 내적 요인이려면, 소설 곳곳에 배치된 ‘시’는 황진이라는 인물의 내면과 그녀에게 설정된 시공간(역사성) 바깥을 연결해주는 어떤 초월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 ‘시’는 황진이가 기생으로서 짓고 부르는 시와 시조로 곳곳에 삽입되어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의 시들이 서사적 관련 없이 배치되어있다. 신라시대 향가인 ‘헌화가’를 비롯해서 고려가요인 ‘청산별곡’과 조선시대의 다양한 한시 및 시조들이 배치되어 있다. 1930년대 이루어진 조선학 연구의 성과와 『문장』지 등의 고전발굴과 소개를 통해 알려진 이 시가들이, 기생으로서 유혹하는 행위에 기품을 부여해주기도하고, 행위와 내면의 분열을 허무적 서정성으로 감싸기도 하면서 분열을 봉합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 소설에서 서사적 질서의 분열과 주체와 섹슈얼리티의 분열을 메워주고, 기녀 황진이를 기품있는 주인공으로 정당화시켜주는 인문적 교양과 예술이라는 문화적 영역은, 당대 이태준이 자기 시대를 해석하는 비전이었던 문화적 민족주의라는 모더니티의 감각과 닿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역사적 과거’, ‘근대적 주체’, 그리고 ‘섹슈얼리티’가 만나는 모순적이고 문제적인 당대 상황을 ‘조선적인 것’, ‘문화’, ‘교양’으로 메우고자하는 이태준의 『황진이』는 모더니티 해석과 선택의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풍속사적 사실을 통한 근대 주체의 부정-김탁환의 『나, 황진이』

1) 사실과 섹슈얼리티

앞서도 언급했지만, 황진이 관련 소설은, 기록으로 전하는 일화들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역사소설이다. 각각의 기록들이 보여주는 과장과 신비화, 불일치 등을 들어 그 사실성이 의심되지만, 바로 그 의심과 부정의 형태를 경유해서라도 그 기록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태생의 한계를 갖는다. 이는 곧 ‘사실’이 제기하는 문제지점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기록에 의존하는 사실 선택은 기록 자체가 갖는 허구성 때문에 벽에 부딪히고, 역으로 근대 ‘사실주의’적 관점에서 기록들을 해석하고 취사선택하는 계급적 혹은 젠더적 관점은 당대의 것이 아닌, 그것을 해석하는 지금 여기의 시각일 것이다. 과거(객관적)의 기록과 현재(주관적)의 해석이라는, ‘사실’을 보는 이런 관점은 근대 인식론적 지평의 근거를 이룬다고 하겠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기 위한, 혹은 우회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변경하는 미시사적, 풍속사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황진이를 사실의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것이 김탁환의 『나, 황진이』이다.

이 소설은 ‘역사와 소설의 포용’이라는 부제와 상세한 ‘창작보고서’가 말해주듯이 소설로 읽혀지기보다는 ‘역사’로 읽혀지기로 의도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지금까지 창작된 황진이류 소설 중에서, 김탁환의 소설이 형식에 있어서 가장 이채로운 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채로운 시도 중 하나는 단연 황진이 삶을 미시사적 풍속사로 재구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전해지는 기록들의 풍문과 과장, 신비화를 그럴법한 개연성으로 교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식이 시도되는데, 하나는 황진이 관련문헌 이외의 다양한 역사와 풍속사, 여성학, 고전문학 등 인문학적 연구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창작보고서를 통해 세세한 참고문헌목록을 밝히고 있는 데서도 드러난다. 그럼으로써 풍문과 과장 속에 부풀려진 황진이의 실체를 드러내려고 한다.

그의 상여가 내 집 앞에 머문 것은 사실입니다. 바위처럼 상여가 무거워져서 나아가기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모의 부탁을 받고 저고리 한 벌을 내주었지요.....허태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기생이 되었다는 풍문을 들었다고 했어요.....상사병으로 죽은 사내 때문에 기생이 되는 여자도 있던가요. 그가 나를 연모하기 훨씬 이전부터 나는 기생 수업을 받고 있었답니다. 그걸 뿐이었어요. 말 보태기 좋아하는 이들이 그럴듯하게 엮었겠으나....⁷⁾

이처럼 소문에 부풀려진 황진이 기생으로서의 실체는, 관기로 출발하는 첫날밤의 습속, 기생의 화장법, 기생수업 등 일상의 세목을 통해 사실적으로 재구된다. 그런데 이처럼 16세기 조선에 대한 인문적 지식들이, 황진이를 구성하는 ‘사실’, 혹은 형상화된 소설적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대 기생들의 수업, 풍속, 가정 배경으로 설정한 아전의 생활상 등은 말 그대로 조선중기 기생 주변에 관한 인문학적 지식 혹은 정보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풍속사적 사실의 대상으로서의 황진이가 극단화된다면, 황진이는 없고 16세기 익명의 기생 누구로도 대체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물론 ‘소설’일 수 없을 것이다. 인문학적 지식 혹은 정보가 황진이의 삶 전체를 대체한다면, ‘소설’ 자체가 성립될 없기 때문이다. 소설이기 위해서는 풍속사로 물러나면서 괄호쳤던 주관적 해석, 정보를 소설적 사실로 전환하는 틀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작가는 회고적 독백의 목소리를 통해, ‘나, 황진이’이야기로 전환함으로써 해결하려 한다. 즉 익명의 기생일반에 해당될 풍속사적 세부를 궁극적으로 ‘황진이’라는 인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근원적이고, 더 상위 차원의 허구(비사실), 즉 죽기 직전의 늙은 황진이가 자기 생을 되돌아보는 회고적 독백이라는 가상적 틀을 전면화하는 것이다. 결국 이 회고하는 황진

7) 김탁환, 『나, 황진이』, 푸른역사, 2002, 110쪽.

이 자신의 목소리와 풍속사적 사실의 재구는 서로 상보적으로 작동하면서 사실·효과를 만들어낸다. 이처럼, 과거 패설류에 전해지던 과장, 풍문, 신비화, 요부의 이미지들은 황진이의 목소리로 해명되어 ‘그럴법함’으로 재조정된다. 이런 그럴법함은 풍속사적 재구라는 인문학, 즉 비허구라는 한축과, 고백하는 황진이라는 거대한 허구의 틀이 결합함으로써 만들어진 사실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과 맞먹는 양의 주석은 이 사실효과를 더욱 증폭시키는데 기여하도록 배치되어있다.

그런데 이 사실효과는 어떤 근본적인 딜레마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 기록은 그것이 개연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전에, 황진이에 관한 행위 서사의 원천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김탁환처럼 역사적 기록을 비사실로 배제하고, 사실로 선택한 풍속적 개연성은 행위서사 자체를 삭제할 수밖에 없게 된다. 노년의 죽어가는 황진이라는 설정은, 이처럼 행위서사의 부정이 만들어낸 필연적 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회고하는 목소리와 풍속사적 정보의 배치를 통해 주조된 ‘사실성’은 한편으로는 ‘주체’(행위와 서사의 주체)의 부정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실의 재조정과 주체의 부정이 야기된 데에는 황진이를 새로이 해석하고자하는 작가의 관점 때문이다. 특히 이는 황진이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재해석에 집중되어있다. 이 소설의 사실효과가 향하는 것은 황진이의 삶에서 드라마틱함을 소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록상의 극적이거나 낭만적인 차원을 벗겨내고, 회고적 독백의 어조로 시정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덧붙인 소문들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드라마틱함을 삭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녀가 가진 정체성의 가장 핵심적 축인 섹슈얼리티를 삭제하는 것으로 향해 있다.

기실 황진이를 존립시키는 제일의적 정체성은 그녀의 미모라고 할 수 있다. 이 미모는 자기가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송유수나, 소세양, 이사종,

지족선사 등 그녀에게 매혹되었던 남성들의 시선에 비춰진 형상이다. 이는 이태준의 소설이나 최근 북한에서 나온 홍석중의 소설에서나, 그녀가 천하절색의 미모라는 점, 그리고 이것이 3인칭의 화자의 시선에 기댄 남성적 시선이라는 점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즉 황진이를 시각적 매혹의 대상으로 정립시켜주는, 그래서 그 미모가 상대를 압도해버리는 섹슈얼리티의 힘은 정작, 그 당사자, 더구나 죽음을 직전에 두고, 서화담의 제자로 정착한 노년의 황진이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철저히 삭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기생은, 관기로서의 기생 수업, 화장법, 첫날밤의 관습 등 풍속의 차원에서 접근되지만, 정작 남자와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 존재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성립시키는 존재 자체의 성격은 배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창작보고서에서 기획의도에서도 드러난다.

우선 고쳐잡아야 하는 관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황진이의 삶을 남녀문제로만 파악하지 말아야한다. 물론 황진이의 인생에서 남자들과의 만남이 중요하지만, 황진이가 어떤 남자와 만나고 헤어지는가에만 주목하여 줄거리를 짜는 것은 곤란하다.....둘째, 앞의 논의와 연관지어, 황진이란 인물을 사랑에 목숨 거는 '기생'으로만 고정시키지 말고 시기적으로 나누어 살필 필요가 있다.⁸⁾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황진이의 섹슈얼리티가 문제적인 이유는 황진이라는 주체의 행위서사의 기본적 원자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그녀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주인공으로 성립하도록 해주는 근거인 것이다. 그러나 이 근거가 되는 행동서사는 한편으로는 그녀 행위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한편으로는 그녀의 유혹에 휘둘리는 당대 지배계급 남성들 거의 전부를 부정하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이태준이

8) 김탁환, 앞의 책.

기록과 행위서사를 선택하면서, 섹슈얼리티와 주체성의 분열을 성적 자기결정의 주체와 문화적 교양의 가치를 통해 정당화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김탁환은 섹슈얼리티 자체를 지우고, 남성편력으로 채워진 행위서사의 주체를 지우는 것을 선택한다.

그런데 조선시대 기생의 아이덴티티로서의 섹슈얼리티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 제도적 차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세' 조선의 제도 하에서의 섹슈얼리티는, '근대'의 황진이 서사에서는 그녀가 맺은 남자관계의 형식으로, '관계'를 만들고, 선택을 하는 행동의 서사를 추동하는 동력이다. 즉 섹슈얼리티는 황진이 서사에서는, 과거 사실(제도)과 근대의 해석(주체)이 만나는 지점인 것이다. 따라서 섹슈얼리티의 삭제는, 단순히 작가의 가부장제의식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 제도 내에서, 제도와 부딪히는 개인의 아이덴티티, 행동하고, 관계 맺고, 선택하는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삭제하려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사실효과 뒤에 전제된 틀 혹은 황진이의 궁극적 정체성인 죽음직전의 회고하는 목소리의 주인은 실상 '행위 없는 주체', 곧 '주체 없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2) 근대와의 결별 욕망

이처럼 섹슈얼리티를 지워내고, 남자관계가 만들어낸 드라마틱함을 소거하는 것, 그러면서도 당대의 기생 일반이라는 지식이나 정보에 머물게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즉 섹슈얼리티가 만들어내는 드라마틱함을 삭제했을 때 그것을 대체할 다른 드라마틱함이 필요한 것이다. 저자는 이를 서화담으로 대표된 조선중기 지식사회 혹은 사상에서 찾는다. 이는 '기생'을 부정하고 '인간'의 길을 열망한 황진이로 부각시키려는 저자의 서술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바치(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거나 무엇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가 제 밥벌이 수단을 뺏내지 않듯이, 악기든 춤이든 이두든, 잔재주로는 인간됨을 평할 수 없답니다. 능란하게 거문고를 연주하고 아름답게 춤을 추어도, 그건 어디까지나 기생의 재주이지 인간의 재주가 될 수 없지요.....언젠가 허태휘는 내게 왜 시를 배우게 되었느냐고 물었어요.....시에는 인간의 성정과 품격이 묻어 담겨있지요.”⁹⁾

섹슈얼리티를 지우고 기생이 아닌 인간의 길을 가고자 한 황진이는, 결국 매혹하는 시각적 대상으로서의 기생이 아닌, 서화담의 목소리의 대변자로서의 정체성이 전면화되는 것이다. 소설 전체를 일관하는 회고적 독백의 주인공 죽기 직전의 노년의 황진이는, 기생의 삶을 마감하고 ‘학인(學人)’의 삶으로 되살아난, 화담학파의 지식인으로 변형된 것이다.

김탁환의 『나, 황진이』에서 일인칭 회고의 틀을 벗기고 본다면, 기생 황진이는, 16세기 풍속사 속의 익명의 기생 일반이거나, 혹은 당대 상류계급의 세계관을 내면화한 지식인의 일원으로 극단적으로 분열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분열을 일인칭의 회고적 목소리가, ‘내가 내이야기를 고백한다’는 가상적 사실성으로 간신히 봉합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 황진이가 기생 일반과 서화담의 이데올로기로 분열한 것은, ‘근대소설’의 ‘사실’이 그것을 구성하고 있던 풍속과 이념, 혹은 개별태와 보편태라는 양날로 분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회고하는 목소리, 주체 없는 주체로서의 황진이는 서화담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절대자(보편태, 이념)이거나 16세기 시정 어디에나 있을법한 기생일반(개별태, 풍속)인 것이다. 황진이의 이 두 양태는 실상, 근대소설의 사실이 기반하는 제도와 의 긴장관계를 공통적으로 소거한 양태라고 할 수 있다. 황진이라는 기생이 풍속사적 사실일 때, 그것은 중세의 제도적 부산물임을 부정없이 전제하는 것이고, 서화담이라는 이념의 현현태일 때, 중세 제도를 초월함

9) 김탁환, 앞의 책, 91쪽

으로써 전제하는 것이다. 풍속과 이념, '사실'의 개별태와 보편태는 공통적으로 중세적 제도를 사실화하는 전제에 기초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앞서 본 주체와 섹슈얼리티가 만들어내는 해석의 긴장 자체를 삭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김탁환의 소설에서 궁극적으로 공을 들이는 것은 화담학과 지식인 황진이의 면모였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부분은 작가의 고백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서화담의 이념이 서사를 통해 드러나지 않고, 아우라와 권위라는 서사를 벗어난 초월적 힘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이다. 즉 서화담의 이념이 중세 봉건제하의 지배질서가 고착되기 이전의 긍정성과 개방성을 지녔다고 강변되지만, 제도와 이념의 긴장이 서술되는 내용으로도 서사적 질서로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소설의 결론은 황진이는 기생의 길이 아닌, 화담학과의 '학인(學人)'이고자 했다는 것이지만, 화담학과의 이념이 무엇인가는 드러나지 않은 채 기생이나 도가(道家)까지도 포용할 수 있었던 개방적 성격 정도가 지시된다. 화담의 권위와 아우라, 화담을 그리는 황진이의 애잔한 어조를 통해, 기생 황진이가 지식인 황진이였다고 힘주어 말하지만, 그렇게 정초해주는 사상, 이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괄호친 채, 당대의 다양한 시들이 배치되어 있을 뿐이다. 본문보다 많은 양의 주석을 채우고 있는 시(대다수가 서화담의 글과 시이지만, 그 외에도 당대 지식인들이 즐겨 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한시와 시조)들이, 서화담과 중세의 이념과 당대 제도 사이를 이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김탁환의 『나, 황진이』는 소설, 혹은 소설적 사실이 풍속과 이념으로 분열되는 것이, 근대주체의 삭제, 주체의 해체와 짝을 짓고 있다는 것을 징후적으로 보여준다. 소설을 이끌어가는 죽기직전의 노년의 황진이가 발하는 허무적이면서도 피곤에 절은 어조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성숙함의 외양을 띠지만, 이면에는 행동하고, 선택하고, 관계 맺고, 그런 행위의 정당성의 원천을 내면의 감정에서 찾고자 고투해 온 근대주체를 떠나보내는

체념과 피곤기가 서려있다. 그리고 그렇게 죽기직전에 내면화한 서화담은 ‘당대의 제도를 이념의 권위와 아우라 속에 감춘 채 승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승인의 압력은 한편으로는 초월적 권위와 한편으로는 엄청난 양의 주석을 통한 물량공세의 형식으로 강제되는 형국이다.

이는 풍속사적 관점을 통한 원자료적 사실성이, 이념을 탈각한 사실성 자체를 내세우는 것 같지만, 실은 그 풍속에 전제되어있는 혹은 그 풍속을 존재하게 하는 ‘제도를 괄호친 채 온존시킨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이념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는 과거를 근대적으로 전유하면서 ‘사실’을 중심으로 인식과 주체가 결합해 만든 지평을 해체하려는 욕망으로 추동된다는 점에서, ‘소설’에만 국한되지 않는, 풍속사와 같은 인문학적 연구에 나타나는 ‘근대 인식론적 체계의 변동’에도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4. 남는 말

이들은 ‘황진이’를 대상으로 한 소설 중에서 이태준과 김탁환의 소설을 대상으로, ‘역사(사실)’와 ‘섹슈얼리티’를 놓고 재편되는 혹은 그것들과 맞닥뜨리고 있는 ‘근대주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근대성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이태준의 소설 『황진이』는 ‘유혹하는 섹슈얼리티를 정체성으로 하는 기생의 행동서사’와, ‘내면과 진정성을 지닌 근대주체의 정당성’을 최초로 분열의 형식으로나마, 일관성있게 연결되어야하는 숙제로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태준이 기록과 행위서사를 선택하면서, 섹슈얼리티와 주체성의 분열을 성적 자기결정의 주체와 문화적 교양의 가치를 통해 정당화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김탁환은 섹슈얼리티 자체를 지우고, 남성편력으로 채워진 행위서사의

주체를 지우는 방식을 선택한다. 김탁환의 『나, 황진이』는 소설, 혹은 소설적 사실이 풍속과 이념으로 분열되는 것이, 근대주체의 삭제, 주체의 해체와 짝을 짓고 있다는 것을 징후적으로 보여준다. 이점에서, 김탁환의 소설이 서있는 지점은, 기생 황진이가 익명의 16세기 기생과 화담학파의 지식인으로 분열하는 지점이고, 이는 ‘소설’이 풍속사와 사상사로 분열하는 지점임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 분열은 근대주체를 해체하거나 적어도 그것에 종말을 고 하려는 욕망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체의 과거 전유 방식과 소설이 얽혀있는 지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런 ‘근대주체’ 해체에의 욕망이 역설적이게도 ‘목소리’로 전체를 일관하는 ‘절대주체’(서화담)를 통해 견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를 부정하는 기획의 근대적 방식’을, 근대와 근대의 해체가 마주하는 인식론적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역사적 기록을 소재로 한 역사소설 중에서, 황진이 소재가 갖는 특수성, 근대와 주체의 문제가, 섹슈얼리티와 연루될 때 야기되는 모종의 선택과 봉합을 해석함으로써 ‘근대’ 자체를 문제화하는 성격에 집중한 것이다. 이 때문에 남성작가의 본격소설을 선택했다. 그러나 동일하게 황진이를 전유하는 소설이라 해도 여성작가가 전유하는 방식은 다른 문제지평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여성에 의한 여성 역사소설의 범주를 통해 고를 달리하여 살펴야 할 몫이다.



참고문헌

- 이태준, 『황진이』, 깊은샘, 1999.
- 김탁환, 『나, 황진이』, 푸른역사, 2002.
- 전경린, 『황진이』, 이룸, 2004.
- 박종성, 『백정과 기생』, 서울대출판부, 2003.
- 권태연, 「조선시대 기녀의 사회적 존재양태와 섹슈얼리티 연구」, 박용옥 엮음, 『여성: 역사와 현재』, 국학자료원, 2001, 56-92쪽.
- 김용숙, 「한국여류문학의 특질」, 『아세아여성연구』14집, 1975, 62-84쪽.
- 김지용, 「매창문학연구」, 『수도사대논문집』6권, 1975, 45-67쪽.
- 이화형, 「황진이의 시적진실」, 『외대어문논총』8호, 1997, 124-148쪽.
- 성현경, 『기녀시조와 사대부 시조』, 형설출판사, 1976.
- 김지용-김미란 편, 『한국여류 한시의 세계』, 여강출판사, 2002
- 가와무라 미나토, 유재순 역, 『말하는 꽃, 기생』, 소담 출판사, 2002.
- 이경민, 『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진 아카이브 연구소, 2002.
- 심영구, 『조선기생 이야기』, 미래문화사, 2002.
- 문정배, 『황진이』, 미래문화사, 1994.
- 정동주, 『논개』, 한길사, 1998.
- 이현희, 『창기와 명기의 애환』, 명문당, 1988.



Fact, subject, and sexuality - on the fiction of 'Whang Jin-ie'

Cha, Hye-Young

This thesis studies historical recode(historical reality), sexuality and sexuality in Lee Tae-Jun' {Whang Jin-ie} and Kim Tak-Whan' {I, Whang Jin-ie}. especially this thesis focus on sexuality and modernity, and selection and suture in the text.

In Lee Tae-Jun' {Whang Jin-ie}, disruption between sexuality and modern subjectivity is sutured through self-decision in sex and cultural dignity. In Kim Tak-Whan' {I, Whang Jin-ie} eliminate sexuality and her mail sex traveling.

Lee's is corresponded with 1930's cultural nationalism, and Kim's is corresponded with deconstruction of modernity and subjectivity.

Key Words

gisaeng(妓生), historical recode, modern subject, sexuality, Whang Jin-ie

* 위 논문은 2005년 10월 30일 투고되어, 11월 28일 심사 완료 후, 12월 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KCS I